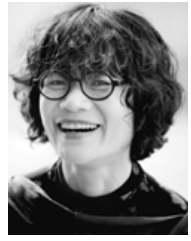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이천이십사년 십이월 삼일밤부터
그만의 자유가 총이 되어 우리를 향할 때
부터
광장의 바닥에서
외치고 노래한다.
키세스 키세스 키세스

그만의 자유가 법 위에서 칼을 휘두를 때
부터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가장 빛나는 것을
흔들며
아스팔트 바닥에서
외치고 노래한다.
키세스 키세스 키세스

나의 작은 불빛이 우리가 되고 물결치는

응원봉과 키세스 우주전사

별들
눈 내리던 아스팔트, 은박담요 키세스의
기도
기억할게 그 파스함
기억할게 그 온기를
키세스 키세스 키세스

노랫말이다. 한남동 앞에서 폭설이
내린 날 밤을 은박담요를 뒤집어쓰고
지새운 민주시민들에게 바치는 노래
다.

12.3 비상계엄령 이후, 알 수 없는 불면증
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다시 헌법 위에서 군림하고 국민
에게 총을 겨누는 대통령을 마주하고 있
니, 전 국민이 불안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비상사국
에 제주항공기 사고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까지 겹친 겨울이다. 우리는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역사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엄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나
쁘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물었다.

"윤석열"
"왜요?"
"지금이야 제일 중요하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모임이 있었
다. 살아있는 의병들의 모임이다. 밤이 깊
었다.

"시민들은 눈 오는 길바닥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란법은 세금으로 관
저에서 호강하고 있으니 복장이 터지고
답답하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임진왜란만 하겠는가! 일제강점기만 하
겠는가! 이 고통이 6·25전쟁만 하겠는가!
아무도 몰랐던 5·18만 하겠는가! 1987년까
지 아스팔트 위에서 싸우고 견뎌왔는데,
암것도 아냐!" 뜨거운 피가 흐르는 느낌이
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까! 동학에서
광주의 오월까지 연결되는 주권자의 정신
과 피가 2025년에도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
다. 그리고 그 피는 20대 30대의 응원봉으
로 빛나고 키세스 우주전사가 되어 어두
운 터널을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는 나라가 위태로우면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오는 대한민국 국
민이다.

社說

정국 불안 사태가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에도 불똥

12·3비상계엄의 불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전남형 출생기본수당'까지 튀
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
협의를 전남도와는 이미 끝냈지만 정국 불확실
성이 더해지면서 일선 시·군과는 미처 마무리하
지 못한 때문이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와 시·군이 출생아에
게 18년간 각각 10만원씩 매달 총 20만원을 지급
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
간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난관에 부딪혔
다. 아울러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목표
시의 경우는 재정난을 이유로 15만원으로 축소
됐다.

인구대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도는 청년
정책, 주거안정, 양육·돌봄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을 위한 실질적 대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
면한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총력전이다. 기본수
당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
고, 자녀 양육기구에 실질 도움이 되길 기대하
는 것이다. 실제로 기본수당은 부모와 자녀가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는 한 총 4천3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남연구원원은 2041년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0% 정도 더 많은 1만425명이 출
생할 것이라 전망도 내놨다.

2024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 0
.97명 대비 상승했다고 한다. 출산율이 전국 평
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청년층이 수도권 등 대도
시로 떠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화되는
인구 감소를 막고 지방 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야
심한 인구대 전환 정책이 출발부터 터덕거리고
있다.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에 대해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도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속히 매듭
짓기로 했다. 일단 1년간 시범 운영하다가 협의
를 마치는 대로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이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남지역뿐 아니라 국가적
저출생 대응 맞춤형 해법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시·
군도 차별없이 동등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기반 구축에 의지
를 모아야 한다.

문화난장



한희원
화가

파란만장한 갑자년이 지나갔다. 일 년 전 2
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순간들이
이제와 돌아보면 찰나처럼 느껴진다. 그만
큼 시간은 빠르다. 즐거웠던 일들, 기쁜 시
간들도 지나고 나면 훗날에는 역사의 한 페
이지에 기록될 뿐이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나 지역, 국가는 순간순간 부여해주는 모든
시간들에 진실되고 현명한 지혜로 임해야 한
다. 그러한 시간들이 모여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2024 갑자년 푸른 용과 2025 을사년의 푸
른 뱀은 색채 중에서 가장 영적이고 지혜를
상징하는 푸름의 연결이다. 필자처럼 그림
을 그리는 화가들도 푸른색을 사용할 때 감
정이 더욱 총만함을 느낀다. 모든 인류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 푸른
빛으로 반짝이는 그 영롱한 빛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 채워져 있
으니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얼
마나 아름다울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곳곳에
는 인간의 탐욕과 권력의 추구로 인해 상처
투성이가 변해가고 있다. 인류애를 상실한
채 인간의 끝이 없는 이기적인 자본의 축적

푸른 뱀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

과 편리함의 추구로 지구는 병들고 그 여파
로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나 인류 전체가 생
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국가들은 자국의 극
단적인 이득에 빠져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
고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과 아이들이 희
생되고 있다. 이러한 인류존망이 걸린 시
기에 종교가 역할을 있고 예술은 자본에 휘둘
리고 철학이 부재한 채 지식의 역할을 잃는
다면 인류의 미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의문이 드는 일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시기에
희망이 되는 일보다 혼란이 가중되는 역사를
현재 맞이하고 있다. 가장 맑은 푸름의 시
기에 가장 어두운 터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영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자들이 국
민들의 삶보다는 자기 개인의 권력을 채우는
모습을 지금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
다.

또한 2024년 연말에는 일어나면 안 되는
아픈 참사까지 겹쳐 우리 지역민들은 속으
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고 있는 중이다.
십년 전 세월호 참사로 꽃 같은 아이들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도한 아픔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 위에 또 다시 어운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여객기 참사는
우리지역에서는 가까운 이웃과 친구, 친지
들이 연관이되어 지역민들의 충격과 아
픈 마음을 필설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친구
의 가족이 희생돼 무안공항을 찾았을 때,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공허한 눈매를 잊을 수 없다. 어찌 몇 마디
말로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오
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연대와 나
눔의 마음으로 뛰는 모습에서 가족들의 아

픔과 상처도 언젠가는 치유되리라 생각이
들었다.

모든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한 일은 살아
남은 자들의 몫이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도,
가장 아픈 시간도 모두 지나가면 흐릿해지지
만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맞닿는 아픈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
다.

올해는 우리 국민 앞에 놓여있는 난제들이
쌓여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상
황과 경제적 어려움 등 얽히고설켜 혼란의
중심에 국민이 서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
역 경영을 위임받은 공직자나 모든 시민들이
진실된 역사관과 인간 사랑의 인류애, 그리
고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으로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국민의
의지에 달려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동체 정신
을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것은 5
월 대동정신을 직접 경험한 우리의 자산이
다. 국가나 지역 그리고 개인은 가장 큰 어려
움을 극복하였을 때 진정한 세계를 만날 수
있다.

2025년은 푸른 뱀의 지혜의 해이다. 우리 모
두가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하나 주어진 일을
헤쳐 나가야 할 한 해인 것이다. 12월 연말이
돼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 볼 때 후회되지 않
게 1월의 다짐을 더 깊게 새겨본다. 글을 쓰는
시간 창밖으로 함박눈이 내린다. 세상의 아
픔 위에도 자연은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정
화시키고 위로해준다.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흘날리느뇨.'
우리들 삶이 안정돼 자기도 모르게 김광균의 시
'설야'를 읊조리는 날도 기대해본다.

'CES 2025' 참가 지역 혁신기업을 응원하는 이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2025'에 광주·전남 기업 51개
사(각 30곳, 15곳)가 참가하고 있다. 혁신 기술과
글로벌 비전을 대내외에 알릴 소중한 기회다. 기
업들이 우수한 역량을 선보여 해외 투자유치 성
공의 디딤돌을 놓기를 바란다. 광주시와 전남도
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참여를 더욱 독려하
면서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보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
을 이끌어내는 무대다. 시·도가 전략산업을 위
주로 관련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다.

광주시는 자체 운영하는 광주공공관에 주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기업이 입주하고, KOT
RA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에서도 전시를 진행
한다. 전남도는 첨단 농생명 벨리, 재생에너지10
0(RE100) 산업단지,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등 주
요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기
업들이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 만큼
기대 이상의 결과도 예상되고 있다.

올해 주제는 '몰입(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이다. 기술과 기술, 기술과 인간을 연결
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I
가 핵심으로 디지털 헬스, 지속 가능성 등 미래
기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시 기업 수는 4천3
00여개, 참여자는 1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
계 무대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제
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해 실무자를 중
심으로 최소화했지만 홍보 부스를 더 알차게 꾸
렸다고 한다. 적극 응원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CES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주
목할만한 결실을 맺고 있다. 지역 기업들의 역
량 또한 세계적 흐름과 부합하고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활성화 등에 탄
력이 부여해야 한다. 내년 간의 전시 이후에도 대
대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우리 아들이 나 편하
게 다니라고 이거 사줬어
~"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게는 효자 아이템인 전동
휠체어가 교통사고 위험
률을 높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함으로써
이동성은 좋아졌지만 이에
대한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마'
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행자로 해당돼 보행
자 전용도로나 보도로 다녀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보
았을 때 대부분은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도로 중앙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경우가 많
다. 어르신들의 사고 위험률을 높이는 전동
휠체어,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로 인도로 가
는 이유 중 하나는 인도로 가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예방해야

이동하기 힘든 구간이 많기 때문이다. 인도
의 폭이 좁고, 장애물들이 많고 울퉁불퉁하
기에 인도로 가느니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
서라도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전동휠체어가 차마에
서 제외된다는 인식의 부지이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차와 같겠거니, 차들이 알
아서 피해가겠거니 하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
다.

전동휠체어는 무게가 100kg에 이르러 사
고가 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또
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기에 차량
과 충돌 했을 때에는 그 충격을 오롯이 다 몸
으로 직접 받게 된다. 그렇기에 전동휠체어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보행자 대우를 받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들

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다닐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들 대부분이 고령자와 장
애우 등으로 이뤄져 있기에 단속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교통약자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보
다는 지도와 계도를 통해 꾸준히 교통법규와
사고 시 그 위험성을 홍보하고 시도에서는
인도 내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방면으로 전
동휠체어 이용자를 보호하는 활동이 행해져
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경우 전동휠체어 후면에 반드시
야광반사지 등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스티
커를 부착하고, 자동차도로가 아닌 마을 내
좁은 구간만을 이용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김수연·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삶의 갈증 김혜숙

오늘도 찾아 나선다

이상한이자 영원한 신가루
피안(彼岸)을

한 곳 생각 바꿈으로
*지족상락(知足常樂)하기를
(지족상락: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

***시작노트**
비바람 부는 이른 아침 다강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파도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신기했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데
무슨 식인지 아닌 건 강요법인지
저들이 바라는 삶과 행복의 기준은 어디쯤 있는 걸까요.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내선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